



“만나긴 만났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첫 영수회담

2시간15분 만남에도 독대·합의문 없이 마무리
민생지원금·이태원특별법 등 현안 이견 노출
이재명 “답답하고 아쉬움...소통 첫장 의미”
대통령실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 나눠”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첫 ‘영수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는 없었으며, 합의문도 나오지 않았다. 29일 오후 2시44분부터 2시간15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영수회담을 마치고 난 뒤 민주당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대통령실 이도은 홍보수석은 영수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열어 “전체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는 의견을 함께 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 현안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

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요구해온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려운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태원특별법 법리 문제를 해소하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에서는 “독소조항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도은 수석은 영수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수석은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135분 ‘동상이몽’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차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

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해 여야 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첫 영수회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상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였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 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의 회담 브리핑을 들어보지 않겠다. 합의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두 분이 ‘총론적으로,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도 뻔한 내용이다. 종종 만나 대화하고 협의하지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1대 회담이 성사된 것은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 회담 이후 약 6년 만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720일 만에 처음이다. /김진수 기자

광주시민, 인천공항 오가며 ‘年 1천억’ 경제적 부담

1년 평균 59만명 이용 교통비 566억·시간비용 454억
무안국제공항 이용시 860억 절감 효과...활성화 시급

광주시민이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면서 연간 평균 1천20억원(시간 비용+교통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부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단순 수치 상으로 800억원의 경제 비용 절

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 민간공항 기능 통합과 국제선 확충을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전남도가 인천공항공사 통계와 대한교통학회 발표집을 기반으로 분석한 ‘광주시민 인천공항 이용 여건 보고’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65만명(연 평균 53만명)의 광주시민이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 이용 시 버스 편도 기준 평균 소요 시간은 8시간(이동 4시간, 출·입국 준비 4시간)에 달하고 교통 비용도 1인당 버스 4만8천원, KTX 6만2천원을 지불했다. 이에 따른 연간 시간 비용(인천공항 왕복 기준, 최소시간 9천600원 적용)은

454억원, 교통 비용(왕복 버스비 기준)은 566억원으로 총 1천20억원(5년 5천100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반면, 광주시민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소요 시간(편도 기준)은 2시간(이동 40분, 출·입국 준비 80분)으로 인천공항에 비해 6시간이나 단축되고, 교통 비용도 7천원에 불과해 최소 4천1천원 이상 절감된다. 연간 경제적 비용 역시 무안공항은 총 100억원(시간 비용 77억원, 교통 비

용 88억원)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보다 8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조속히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국제선 다변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호남고속철도 2단계(무안공항 경유 노선) 공사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활주로 연장 공사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이전한 뒤 미주·유럽 노선까지 국제선이 확대되면 무안공항이 광주지역 내 인천공항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광주공항에서 제주 노선 국내

선을 이용한 광주시민은 180만명에 달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제반 여건이 갖춰져 광주시민들이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연간 최소 800억원의 비용과 통행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시민을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공항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교통비 현금 'K-패스' 내달 시행	5면
광주문인협회 문학미당	15면
KIA, 홈 6연전 승수 쌓기 '호기'	16면

2024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 원우 모집

6월 5일 개강 | 특강 5회 · 2박3일 선도 관광지 견학

광주·전남지역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관광아카데미는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으로 이론 및 국내 관광 선도지역 견학 등 현장 학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광주매일신문이 개설한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에서 전문지식을 통해 관광 산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되십시오.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민간축제위원회, 행사 기획사, 관광에 관심있는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인원** 50명 안팎
- 교육기간** 2024년 6월 5일 개강, 6월 12일-14일 현장학습(여수·통영), 6월 20일 종강
- 지원자격** 광주·전남 자치단체 관광 관련 공직자, 이벤트 기획사 임직원 및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는 시·도민
- 강의방식** 전문가 특강 5회 / 현장학습(2박3일, 여수·통영)
- 수강료** 250만원(현장학습비 포함)
- 모집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 문의** 광주매일신문TV본부 062) 650-2024